

연 중 제28주일 복음나눔기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마태 22,9)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나눕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1) - 마태 22,1-14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1-14

- 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 2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 3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 4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 5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 6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 7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 8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 9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 10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 11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 12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 13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14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절, 한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그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며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장소가 아닌 사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입니다. 임금의 초대, 그것도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 받는 것은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보낸 종들이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려 했으나 그들은 오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잔칫상을 이미 차렸으니 어서 오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할 일을 하러 가거나 임금의 말을 전하는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잔칫상까지 차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초대까지 하는 임금은 자상해 보입니다. 이 자상함은 사람들에게 임금의 무섭지 않은 사람이니 그의 말을 무시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배려를 잘하는 임금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구나 임금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립니다(7절). 임금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난 뒤에도 혼인 잔치는 계속 되고, 또한 임금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10절). 그런데 이제는 혼인 예복이 문제가 됩니다.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11절~13절).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2절)'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공간적으로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임금'이라는 사람에 비유하십니다. 이 임금은 잔칫상도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하고 손님을 기다립니다(2절-4절). 오려고 하지 않는 손님들을 다시 한 번 초대하는 인내심도 있습니다(4절). 하지만 이 임금은 진노하기도 합니다(7절).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8절). 그렇지만 임금은 초대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초대받은 자들' 대신 '아무나' 잔치에 불러오도록 합니다. 초대받은 민족, 선택된 민족이란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임금에게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잔치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혼인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마태오 복음에 따라 혼인 예복의 우의적 의미를 따진다면, 혼인 예복은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행함(7,24-26), 아버지의 뜻을 행함(8,21), 의로움을 행함(3,15; 5,20), 사랑의 이중계명을 행함(22,34-40), 자비를 행함(25,31-46)을 뜻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이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200주년 신약성서 주해, 분도출판사, 123p)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잔치에 초대 받았습니다. 잔치에 갈 것인지, 또한 잔치에 어떤 옷을 차려입고 갈지는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나만의 노력으로 혼인 예복을 차려입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고 청해야 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14절)”

(해설을 듣고 자신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 묵상나누기

- 하늘나라(혼인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임금의 초대보다 귀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주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개인의 특별한 지향이나 소망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